

삼양사, 전북은행 최대주주 복귀

9월8일 총 지분 11.99% 확보 ... 사모투자전문기업과 지분 경쟁

삼양사는 9월8일 전북은행의 지분 0.65%를 추가 매집해 총 11.99%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은행의 최대주주로 복귀했다고 발표했다.

삼양사는 1980년대부터 전북은행의 최대주주로 있었으나 8월7일 케이티비이천칠사모투자전문기업이 전북은행의 지분 11.92%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빼앗겼다.

시장 일각에서는 삼양사와 케이티비이천칠사모투자전문기업이 전북은행의 지분을 두고 었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분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.

삼양사는 설탕·밀가루·식용유·가공유지 제조 등 식품부문과 항암제·의약품원료 제조 등의 의약품 부문, 그리고 EP(Engineering Plastic) 제조 등 화학부문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9/09>